

집권(執權)을 위한 노동운동,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무소속



일과 삶을 깨닫는

경남직업문화센터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126번길 50 중앙시장 3층
 전화: 055) 285-5879, 282-1919
 팩스: 055) 282-1920
 이메일: gwccenter@hanmail.net

집권(執權)을 위한 노동운동,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차 례

다시, 희망으로!!

1. 우리의 고단한 삶을 바꾸어 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1) 노동자의 삶을 지켜내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갑시다.
- 2) 진보정치 복원은 노동운동의 역사적 과제입니다.
- 3) 노동자는 진보정치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2. 진보정치 복원은 노동운동, 민중운동의 역사를 계승발전시키는 길입니다.

- 1) 그 암울했던 일제시대부터 민족해방, 민중해방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 2) 선배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을 토대로 진보정치 복원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3) 이제 노동자가 나섭니다.

3. 진보정치 복원은 노동자의 새 세상을 열어나갑니다.

- 1) 진보정치 복원은 평등 세상을 중단없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 2) 진보정치 복원은 민주주의, 자주와 통일을 실현할 것입니다.
- 3) 진보정치 복원은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 4) 진보정치 복원을 통해 노동자 농민등 민중이 대통령도 되고, 지자체단체장도 되고, 의원도 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4. 노동자가 나서야 진보정치가 복원됩니다.

- 1) 왜 노동자가 진보정치 복원의 중심인가?
- 2) 현장 활동가들과 민주노총 조합원 다수가 진보정치 복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3) 진보정치 복원은 농민, 도시빈민, 진보적인 청년, 서민까지 포괄해야 합니다.

5. 새롭게 복원될 진보정치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 1) 진보정치는 실천하는 조직입니다.
- 2) 진보정치는 적극적으로 선거투쟁에 임하고 의회, 지방자치체 활동으로 민중의 권익을 쟁취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야 합니다.
- 3) 진보정치는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하고 대중투쟁과 의회활동을 결합해야 합니다.
- 4) 진보정치의 복원은 노동조합운동과 적극 연대합니다.
- 5) 진보정치의 복원 그 주인이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6. 진보정치의 복원은 실천속에서 건설되어야 합니다.

7. 진보정치 복원의 뿌리는 현장입니다.

- 1) 현장에서부터 정치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합니다.
- 2) 현장 정치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8. 노동자의 희망, 진보정치 복원에 모두가 나섭시다.



다시, 희망으로!



지금 우리 노동현실은 피로써 쟁취한 민주노조와 노동기본권 조차도 야금 야금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동현실은 미조직 노동자 90%에게는 무노조로 사는 것도 모자라 임금삭감, 일반해고, 취업규칙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원천적으로 빼앗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노동자 10%에게는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무력화 시키려고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의 살림살이와 노동기본권은 많은 부분에서 신장되었습니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를 불러일으킨 국제마피아들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가면을 쓰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강제로 이식시켰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비정규직이 일반적인 고용형태처럼 변질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오직 동료와의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고, 여성과 남성을 가르고, 노인과 청년을 갈랐습니다. 또한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로 갈랐습니다.

자본과 권력은 뭉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노동자의 천부적인 권리인 자신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찾아가는 게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나 이 노동조합은 현 정부아래서는 숨쉬기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노동자!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공동행동을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96~7년 노동계약저지 총파업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노동자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 물질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에게는 노동자를 대변할 힘 있는 정당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고용안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철폐는 현실정치관이든 제도언론의 지면에서든 가물에 콩 나듯 비치고, 오로지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경제희생이고 고통분담이고 1%를 위한 절대다수 민중의 희생이었습니다.

국회의원 10석으로 노동의 희망이 되었던 민주노동당은 정권의 진보정치탄압과 우리의 갈등과 분열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오류와 성과를 딛고 다시 새로운 희망을 만들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의 역사가 그러하듯 슬한 우려곡절을 통해 진보정치는 죽었다 살아남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만듭시다.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제 시행등 노동법 개악으로 노동운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정치의 위기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지지로 성장하던 민주노동당은 온데간데 없고, 진보정치는 탄압과 분열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장의 패배감과 상처는 너무나 커 무관심과 분노로 가득합니다.

지금 노동운동은 비상한 시기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노동운동도 비상한 시기입니다. 비상한 시기는 비상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부패와 모순에 찬 현실을 거부하는 노동자다운 기백과 패기,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인식과 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 자본주의의 총체적 위기는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할 계기이자 역사적 전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썩은 부위가 깊어 터졌을 때가 근본적인 수술을 할 기회인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노동자 생존권과 노동운동의 위기는 노동자의 투쟁과 대응에 따라 운동의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변증법인 것입니다.

더 이상 임금삭감과 정리해고를 용납할 수 없다는 대중적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공황기에는 자본과 정권의 폭압적 탄압으로 작은 생존권 투쟁조차도 정권에 대한 정치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중투쟁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 투쟁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노동자 대중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진보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진보정치를 중심으로 대중들의 투쟁을 정치투쟁으로 촉발시켜내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 전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절망에 빠져있는 노동자 민중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길입니다.

2) 진보정치 복원은 노동운동의 역사적 과제입니다

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이 정당과 노동조합 두 축으로 전개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는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듯이, 노동자가 노동자의 정당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은 아직 당이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변혁적, 진보적 정치운동이 단절되었고, 독재정권에 의해 정당건설이 탄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노동자들이 주체가 된 정당이 건설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보정당 건설은 노동자들이 이룩해야 할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진보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정치적 발전은 지체되고 보수정당들에게 농락 당해 왔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투쟁 속에서 구속되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처한 정치 사회적 지위나 노동악법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팔시받고 탄압당하는 대상입니다. 게다가 노동운동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노협 때

노동자들의 열망을 표현했던 구호가 ‘노동해방’이었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이지만 노동자가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으로 단결되어 있는 대다수의 노동자들도 보수정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보수정당들이 만들어놓은 지역감정에 빠져 노동자들은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을 찍어왔습니다. 그들이 모두 반노동자적인 세력인데도 노동자들은 지역에 따라 갈기갈기 찢겨졌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단결한 노동자계급이 아니라 지역감정으로 갈기갈기 찢겨진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얻은 성과물도 보수정당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보정치 복원은 이러한 굴레를 벗어 던지기 위한 역사적 과제입니다. 노동자가 정치적으로 단결하여 이 사회의 주인, 정치권력의 주인으로 당당히 나서는 길입니다.

3) 우리는 진보정치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 96~97년 총파업을 돌이켜봅시다. 우리 노동자들은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총파업으로 펼쳐 일어났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날치기 노동법 무효화를 위해 투쟁했고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김영삼 정권을 비틀거리게 했습니다. 물론 정권을 굴복시켜 정리해고를 완전히 철회시키지 못한 것은 총파업의 한계이기도 하고 투쟁전술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총파업을 통해 노동자들은 정치투쟁의 주역으로, 강력한 사회적 세력으로 우뚝 섰습니다.

총파업 이후 노동자들에게 정치세력화, 진보정당 건설은 당연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노동자가 무슨 정치를... , 시기 창조 아니냐?”는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경제투쟁이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각인 시켰듯이 거대한 정치 총파업은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각인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는 총파업을 통해 정치적으로 각성되었고, 노동자의 정치적 단결의 필요성을 깨우쳤습니다.

정치 총파업까지 벌였던 우리가 진보정당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거도 치러봤습니다. 87년, 92년 대선 때에는 백기완 선생이 민중후보로 출마했고, 97년 대선 때에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후보로 내세워 선거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선거운동에 발벗고 뛰었습니다. 98년 지방자치체 선거에서는 노동자 후보가 울산에서 대거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자 후보를 선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거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노동자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진보정당을 건설한다는 등의 정치방향을 결정해왔습니다. 각 지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치학교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학교에 참가한 많은 노동자들에게서도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보정당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진보정치는 노동운동, 민중운동의 역사를 계승·발전시키는 길입니다.

1) 그 암울했던 일제강점기부터 민족해방, 민중해방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 아래에서도 우리의 선배들은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민족의 해방과 민중의 해방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일찍이 일제가 조선 침략의 마개를 드러내었을 때부터 조선의 민중은 일제에 항거하여 목숨을 내건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민중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수십만의 동학 농민들은 일제의 대포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의연히 싸웠습니다. 일제의 무자비한 진압 이후에는 의병, 독립군 투쟁 등으로 이어지다가 3.1운동 이후 조선의 노동자,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조직적인 투쟁으로 계승, 발전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독립군과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조선의 해방을 위한 활동과 무장투쟁을 벌였습니다. 국내에서는 20년에 최초의 노동자 농민운동 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를 건설하였고, 24년에는 모든 노동자 농민운동의 역량이 결집된 조선노동총동맹을 건설하였습니다. 1925년에는 조선공산당이 건설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원산 총파업 등 일제의 지배와 착취에 맞서 투쟁했습니다. 또한 일제의 광폭한 탄압 속에서도 6.10 만세운동, 소작쟁의를 비롯해서 노동자 농민 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1920년대 말에는 민족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세력들이 결집하여 신간회를 결성, 일제에 맞선 노동자, 농민의 대중 투쟁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러한 조직들과 운동 역량들은 일제의 탄압으로 대부분 와해되었지만, 당시의 투쟁의 경험과 역량은 해방 이후 이 땅의 노동자 민중운동을 이끌어 가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노동자들은 60만 조합원을 가진 명실상부한 전국조직인 전국노동조합평의회(전평)를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건국준비위원회 등 제 정당사회단체를 건설하고 자주적 국가를 수립하고 민중해방을 이루기 위해 가열차게 싸웠습니다. 전평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약화와 미군정과 이승만 일당의 지배와 분단음모에 맞서 투쟁했습니다. 47년 9월에는 30만 노동자가 궐기한 총파업을 벌였고 10월 민중항쟁을 주도했습니다. 비록 미군정과 이승만 일당의 폭압으로 투쟁은 좌절되고 조직이 궤멸되었지만 노동자 민중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사에서 노동자 민중들은 해방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고 당을 건설했습니다. 비록 탄압에 의해 와해되었지만 그 운동의 정신과 지향은 결코 꺾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 민중이 이 땅에 있는 한 민중의 해방을 향한 도도한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오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보정치를 건설하는 것은 선배들이 못 이룬 과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2) 선배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을 토대로 진보정치 복원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에서도 노동자와 민중들의 투쟁과 정당건설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탄압 속에서 활동하였고 많은 열사들이 탄압에 의해 죽어갔습니다.

우리 민중들은 이승만 정권의 반민주적 통치에 맞서 4.19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교원노조운동 등 민주노

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파쇼통치 아래서 민주주의는 압살 당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는 이뤄지고 있었지만 노동자들은 인간 이하의 생활을 강요받았습니다. 이에 맞서 전태일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하였고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민주노조를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탄압에 의해 수많은 민중들이 구속되고 죽어갔지만 군사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박정희 정권은 민중들의 투쟁에 의해 자중지란을 일으켜 무너졌습니다.

또다시 이어진 군부의 계엄령 선포와 민주주의 압살에 맞서 80년 광주 민중들은 무장항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비록 전두환 일당에 진압 당했지만 광주민중항쟁은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투쟁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전두환 정권의 유화조치를 뚫고 민주노조를 건설하였고, 전평 이후 최초의 동맹파업인 85년 구로동맹파업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쟁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중들은 군사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투쟁으로 나서 87년 민중항쟁을 일으켰습니다.

마침내 87년 민중항쟁에 이은 노동자 대투쟁을 기점으로 억눌렸던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가 폭발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생존권 쟁취와 민주노조 건설로 떨쳐나섰습니다. 민주노조는 가장 위력적인 사회세력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농민, 빈민, 학생 등 민중들은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진출했고 민주세력의 활동은 넓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습니다. 87년, 92년 대통령선거에 백기완 선생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 억눌렸던 민중의 목소리로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는 당 건설로 이어져 민중의 당, 민중당 등이 출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들은 분출하고 있던 노동운동과 결합하지 못했고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내부 갈등과 혼란 속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운동을 이끌었던 김문수, 이재오, 이우재 같은 상층인사는 신한국당(지금의 새누리당)으로 투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80년-90년대 초 진보정당 운동은 정당 건설로 분출하는 노동자 민중 운동의 성과를 발전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정치운동

과 진보정당에 대한 불신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

<민주노총 강령>

“2.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 강 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재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3. 기본과제

한국사회는 95년 지방자치제 선거를 시작으로 96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97년 대통령선거등 권 력 재편기에 들어섰다. 권력 재편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각 정당 정파는 이합 집산을 거듭하고 있고, 기존 정당의 보수화가 노골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정당의 보수화에 맞서 시민운동과 청년층 중심으로 개혁정당 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지만, 이들은 대중적 기반이 취약하고 민족민주운동을 경시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한 계를 안고 있다. 민주노총은 첫째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과 선거 법을 개정하고 각종 선거에 적극 대응하여 노동자 대표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한다. 둘째, 민 족민주운동을 비롯한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확고한 대중적 토대를 구축하며, 궁극적 으로는 전체 노동자 대중의 요구와 이해를 진실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건설한다.

< 1997. 7. 24.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사항 (요약) >

“민주노총은 대중적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자가 적극 참여하고 각계 각층의 민주적이고 양심적인 세력과 함께 하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실현하고 노동자의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 건설의 토대를 구축한다.”

< 1999. 4. 7.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 (요약)

>

“1-1. 시기

민주노총은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창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발족식은 4월 18일 오전 10시로 한다.

1-2. 참여범위

1999년 4월 18일 창당추진위 발족식까지 민주노총은 중집위원, 중앙위원, 중앙조직 간부, 연맹, 지역본부 임원 및 정치위원장, 단위노조 위원장과 이 범위의 전현직 주요간부로서 참여에 동의하 는 사람으로 800명 이상의 추진위원을 조직한다.“

다. 불타오르기 시작한 민주노조 운동은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91년 민주노조 운동의 결집체인 전노협을 건설하였고, 95년에는 전노협과 업종회의, 대공장 민주노조 등 모든 민주노조운동을 망라한 민주노총을 건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박창수, 양봉수 열사를 비롯해 많은 노동열사들이 정권의 탄압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노동자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선배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3. 진보정치 복원은 노동자의 새 세상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1) 진보정치 복원은 평등세상을 중단 없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이 주인인 이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착취당하고 자본과 끊임없이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작업속도를 늘리는 등 노동 강도가 부쩍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사무직 노동자들이 연장근무수당도 없이 일할 것을 강요받으며 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산재와 과로로 쓰러지고 노동자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본은 임금을 자꾸 깎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을 늘려 임금을 더욱 더 떨어뜨립니다. 허리띠를 조이고 또 조여도 버틸 길이 없는 노동자들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착취강화로 이윤을 늘리려는 자본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려는 노동자는 현장에서부터 대립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를 봅시다.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해져 한편에서는 굶주리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호화사치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결국 파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세계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고 우리 나라는 외국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는 정책으로 호황을 누리던 이른바 수정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구하려고 자본가에게 노동자를 마구 자르는 자유를 보장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를 더 큰 위기에 빠뜨려버렸고, 지금은 이를 헤쳐나갈 대안이 없습니다.

노동자가 중심이 되고 민중이 함께 하는 진보정당은 제대로 된 경제회생을 위해 이미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이 제출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을 더욱 발전시켜 이를 제시하고 실천하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사회를 위기로 빠뜨렸고 지금도 황폐화시키고 있는 독점재벌의 지배를 끝장내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생산과 경영, 분배에 주체로서 참여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인간다운 삶과 평등이 보장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2) 진보 정치 복원은 민주주의, 자주와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진보를 실현하려는 진보정당은 노동자와 민중이 주체가 되는 참된 민주주의, 철저하고 심화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군사독재가 물러가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의 정부’로 바뀌어도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요원합니다. 노동약법에 의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노동조합이 탄압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정치사상의 자유도, 결사의 자유도 없습니다. 진보정치는 노동약법,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 등 반민주약법과 기구들을 철폐하고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분단으로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자주와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단일민족 분단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치 군사적 종속과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등 외세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엄청난 민중의 혈세가 군비 구입에 낭비되고 청춘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진보정치는 자주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군비를 축소하고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자본과 정권이 추구하는 흡수통일이 아니라, 남북의 노동자와 민중이 주체로 나서는 통일을 지향합니다.

3) 진보정치 복원은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진보정치는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합니다. 임금삭감이나 고용유연화 없이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투쟁을 합니다. 진보정치는 노동약법, 노동탄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진보정치는 전 민중의 생존권을 옹호합니다. 뼈 빠지게 일만하고 부채만 늘어나고 있는 게 농민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농촌을 떠나고 농업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농가부채를 탕감하고 농산물가격을 보장하여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일자리에서 쫓겨난 실업자들이 생계 때문에 노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환경미화, 금지구역을 앞세워 노점상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노점금지구역을 폐지하고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책 없이 삶의 보금자리에서 쫓겨나는 철거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진보정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개조할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폐지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취업에서부터 제한 받고, 어렵게 구하는 일자리만

저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저임금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는 여성에게 숙명처럼 떠맡겨지며, 여성은 여기에 얽매어 자기실현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도 동일한 취업기회와 동일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며, 가사노동은 사회화되고 여성에게만 씌워진 노동의 부담을 분담해야 합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불평등 구조는 깨져야 합니다.

또한 모든 민중들이 기본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습니다. 거대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지만 한편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당장 끼니도 때우지 못하는 사람들,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들, 병들어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돈걱정 없이 소질에 따라 대학과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병든 사람은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누진세를 강화하는 등 세금제도를 개혁하여 평등한 사회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와 경제발전을 추구합니다.

4) 진보정치 복원을 통해 노동자 농민등 민중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되고, 광역기초의원도 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가 뭉치면 권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진정으로 노동자, 농민등 민중을 위해 헌신하면 믿어주고 함께 한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한 때 민주노동당은 15%의 지지율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민중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사분오열하고, 제 욕심만 채우면 냉정하게 돌아선다는 것도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다시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짓밟히는 진보정치가 아닌 20년이 가고, 50년이 가는 노동자 농민 민중 중심의 새로운 진보정치를 반드시 복원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잘 하고, 더 원칙으로 가지고 진보정치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진보정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진보정치가 지향하는 사회는 노동자들이 바라는 사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정치권력을 잡아야 합니다. 이번 노사정대야합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

편이 아닙니다. 노동자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민중은 사회의 다수이기 때문에 다수가 권력을 잡는 것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노동자들은 이 사회에서 가장 민주적 훈련이 잘된 세력이기 때문에 권력을 잡을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소환제도(불신임제도, 신임투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결코 직선제를 양보하려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의 직권조인을 단호히 반대하고 직접 민주주의인 총회의 인준을 요구합니다.

노동자는 약자를 보호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에 더욱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권력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진보정당은 대중투쟁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4.19혁명, 부마항쟁, 광주항쟁, 6.10 항쟁, 7,8월 노동자 대투쟁, 97년 총파업 등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권력을 뒤흔든 것은 대중의 헌신적인 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거에 참여해서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다양한 정치활동을 전개해라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자체에 진출하여 행정경험을 쌓고 집권의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의 성과로 대중의 정치적 각성이 높아지고 대중조직이 강화되고 당은 다수의 지지를 획득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구조적 개혁을 완수하고 철저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노동이 아름답고 존중되는 평등세상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한번 깨진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뜻이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고 노력하듯이,.... 진보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4. 노동자가 나서야 진보정치가 복원됩니다.

1) 왜 노동자가 진보정치 복원의 중심인가?

첫째, 진보 운동의 중심이 노동자입니다.

말로만 노동자 중심이 아닙니다. 이미 노동자들은 투쟁의 중심, 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본의 탄압과 정부의 반노동, 반민중 정치에 맞서 가장 강력하게 싸우는 세력은 바로 노동자들입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전노협 건설, 민주노총 건설로 노동자는 당당하게 투쟁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에는 학생이나 재야단체들이 투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동자가 중심입니다. 노동자가 서야 민중이 섭니다. 따라서 진보정치의 복원도 노동자가 중심에 서야 건설될 수 있습니다.

둘째, 노동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통 받기 때문에 가장 철저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착취와 억압의 최대 희생자입니다. 노동자와 자본가는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는 노동자가 희생돼야 하고,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본이 희생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는 가장 철저하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에 든 것이 많

다고 잘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중심이 돼야 합니다.

셋째, 노동자만이 새로운 대안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소기업가들도 재벌 중심의 사회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들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들에게도 조금 나눠줄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수 독점재벌에 의해 소유된 부가 모든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쓰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총체적 대안은 노동자들만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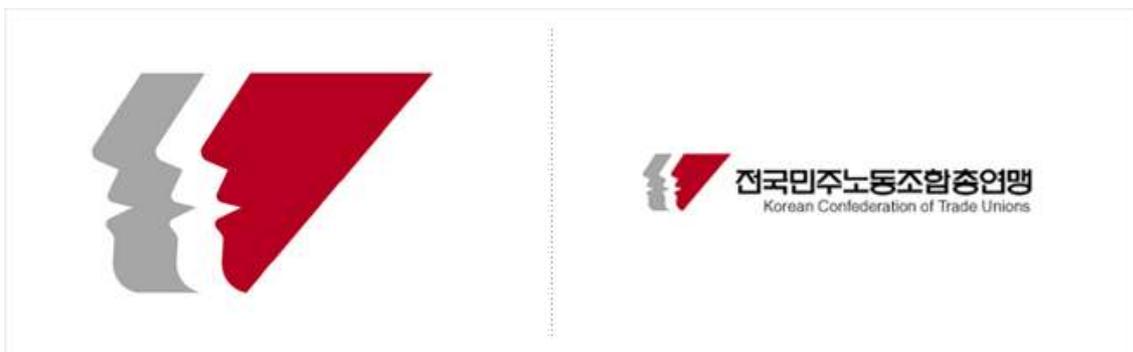
넷째, 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1천 8백만명이 노동자들입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3천 5백만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노동자인 것입니다. 앞으로 노동자의 수는 더 늘 것이며 사회에서 차지하는 힘과 비중도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새로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노동자가 중심에 서지 않으면 진보정당은 허약해지고 변질됩니다.

80년대 이후 진보정당을 건설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중심이 되지 못했고 지식인과 지식인 출신의 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중심이 튼튼하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뿌리가 없으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런 조직들은 쉽게 흔들리는 허약한 조직이 되었고, 쉽게 좌절하였습니다. 그런 한계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노동자가 진보정당을 주도하고 기둥뿌리가 돼야 합니다. 노동자 중심성은 진보정당 건설에서 확고한 원칙입니다. 지난 민주노동당부터 통합진보당까지 오는 진보정당 15년을 돌아봐도 그건 분명합니다.

2) 현장 활동가들과 민주노총 조합원 다수가 진보정치 복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모든 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한다면, 진보정치는 가장 앞서있는 노동자들을 우선 조직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떤 노동자가 진보정치의 주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야말로 전체 노동자 중에서 가장 깨어있는 사람들이며, 가장 앞서있는 사람들입니다.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80만 조합원들이야말로 1천 8백만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이끌어 나갈 주역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대다수가 진보정치의 주체로서 참여해야 진보정치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10만 명 이상은 가입해야 진보정치가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현장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선진 노동자들이 진보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투쟁에 헌신하는 노동자들이 진보정치 복원에 앞장서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자본의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현장 노동자들이야말로 현장의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진보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주역입니다. 또한 진보정치를 조합원 대중 속에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진보정치 복원의 희망은 현장 활동가와 열성 조합원들에게 있습니다.

3) 진보정치 복원은 농민, 도시빈민, 진보적인 청년, 서민까지 안아야 합니다.

노동자만의 힘으로는 새로운 세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직 노동자의 단결은 미미합니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낮고 정치적 계급적 각성의 수준이 낮습니다. 또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 도시빈민, 학생, 근로서민 등 모든 민중들이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중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진보정치 복원 또한 역시 노동자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중심은 노동자가 확고하게 잡혀, 억압받고 있는 모든 민중들과 함께 하는 진보정치 복원이어야 합니다.

농민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농민들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중심으로 정부의 살농정책에 맞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노점상, 철거민 등 도시빈민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도시빈민들은 전국노점상연합회, 전국 철거민연합, 전국빈민연합(준) 등으로 뭉쳐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청년, 학생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청년,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근로서민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묵묵히 일만 하던 근로서민들의 생존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보정치의 복원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민주단체, 지식인들도 함께 해야 합니다.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활동하는 민주단체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민중들은 노동자의 벗입니다. 노동자가 모든 민중들과 어깨 걸고 힘을 모아 진보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5. 새롭게 복원될 진보정치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1) 진보정치는 실천하는 조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라고 하면 선거를 떠올립니다. 정당은 선거하는 조직이고,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자에게 아부나 해서 출세하려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정당들이 그래왔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노동자들에게 굽신거리며 한 표를 구걸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그뿐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 경제를 어렵게 한다느니 반국가세력이니 하면서 노골적으로 반 노동자적 작태를 저질렀습니다. 이전에 진보정당을 하던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생각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중심이 된 진보정당은 그런 정당과는 다릅니다.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은 투쟁하는 조직입니다.

정당이 대중투쟁을 한다고 할 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를 잠깐 훑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중요한 정치적 변혁은 대중투쟁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4.19 혁명, 80년 광주민중항쟁, 87년 6월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이 그 예입니다. 심지어 야당도 의회에서 안되면 거리로 나서곤 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투쟁 없이는 아무 것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왔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도,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단체협상을 쟁취하는 것도 투쟁하지 않고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물며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는 진보정당이 투쟁 없이 무엇을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민주노총 구속자보다 더 많은 구속자가 양산되는 진보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투쟁을 잘 하기 위해 진보정당을 건설합니다. 진보정치의 복원은 투쟁의 구심으로 되는 과정을 철저히 밟아야 합니다.

진보정당의 당원들은 항상 현장 투쟁의 선봉에 섭니다

진보정당은 노동자의 전국적이고 정치적인 투쟁을 조직합니다. 노동자의 투쟁은 결국 정치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 사업장별 투쟁을 넘어 노동자 전체의 투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정대야합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개별 자본과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와 전 정부의 대립이며,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진보정당은 전체 민중들의 투쟁을 조직합니다. 노동자와 함께 절망에 빠진 민중들을 자본과 정권에 대한 연대투쟁으로 떨쳐나서게 합니다.

아울러 진보정당은 민주주의와 자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전개합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와 민중에 대한 감시 철폐, 남북 긴장 반대와 군비축소, 평화 통일을 위한 투쟁을 주도합니다. 이 투쟁에 모든 민주세력의 힘을 결집합니다.

2) 진보정치는 적극적으로 선거투쟁에 임하고 의회, 지방자치체 활동으로 민중의 권익을 쟁취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야 합니다.

노동자는 투쟁만 하고 정치는 보수정당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보수정치세력에게 직접도록 당해왔습니다. 노동자를 죽이고 재벌만 살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재벌의 뒷돈을 받아먹고 노동악법을 만들어 끼리끼리 모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의원들, 투쟁을 진압하기 위해 모여든 경찰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지방자치단체들... 노동자들이 노동악법을 철폐하라고, 노동탄압을 중지하라고 그렇게 싸워도 그들은 꼬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민중들의 삶과 무관하게 이전투구하는 보수정치를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반노동자적이고 재벌 편만 들고 있는 보수정치를 내버려두겠습니까? 이제 보수정치세력을 몰아내고 노동자가 정치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진보정당은 적극적으로 선거투쟁을 전개합니다.

이제까지 노동자와 진보세력들은 독자후보를 내고 선거에 참여해 왔습니다. 87년과 9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백기완 선생이 민중후보로 출마했고, 97년에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을 대표하여 출마했습니다. 80년대 이후 총선에서도 많은 노동조합과 민중진영의 후보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지난 98년 지자체 선거에서는 울산에서 두 명의 구청장 후보와 3명의 광역의원 후보, 5명의 기초의원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전국에서 23명이 지자체선거에 당선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2004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10명(13%)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3석, 광역의원 24석, 기초의원 115석을 당선시켰습니다.

진보정치가 복원되면 우리는 선거를 이용해 현재의 썩어빠진 정치판과 민중을 억압, 수탈하는 사회구조를 낱알이 폭로할 것입니다. 의회연단을 통해서 사회의 썩은 뿌리를 폭로하고 단죄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 더욱 더 포악해진 민중에 대한 탄압을 폭로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나라의 주인 행세할 자격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폭로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중들의 투쟁과 행동을 조직할 것입니다. 대중들의 분노를 조직하고 자본과 정권에 대한 행동으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늘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투쟁에 앞장서는 투사가 될 것입니다.

선거는 대중들이 평소에는 드러내지 않는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나타내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선거는 대중들에게 진보정치의 정책을 선전하고, 확산시키고, 대중들을 진보정치의 대열에 합류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선거는 투쟁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놓고 여러 세력이 격돌하며 대중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싸우는 장입니다. 진보정당은 선거에서 보수정치세력들과 당당히 대결하여 대중들에게 노동자의 정책을 알려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와 지역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지를 제시하고 대중들의 지지를 획득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노동자의 주장이 의회, 지방자치단체에서 울려 퍼지게해야 합니다. 나아가 선거와 의회연단을 이용해 진보정치의 이념과 정책을 알려내고 대중들의 지지를 획득해야 합니다. 또한 대중투쟁을 지지, 옹호하고 우리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주체적 역량을 기르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3) 진보정치 복원은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하고 대중투쟁과 의회활동을 결합해야 합니다.

진보정치는 노동자와 민중의 노동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씬 없이 정치활동을 합니다.

중요한 정치활동중의 하나는 사상정치활동입니다. 이는 사회의 기만적인 이데올로기에 맞서 과학적이고 세상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노동자의 의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비전이 없으면 노동자의 운동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임투 때가 되면 ‘생산성 향상 분만큼’ 이라는 자본의 논리와 ‘노동력을 유지하는 생활비용의 보존과 세상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노동자의 논리가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정치활동이 더욱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한 공황을 맞이하여 정권과 자본은 필사적으로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기만적인 논리, 사고체계로 흡수하기 위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발을 묶어 놓으려는 상대의 논리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과 함께 투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보정치는 자본과 정권이 내세우는 신자유주의의 본질과 허구를 폭로하고, 정권의 민중에 대한 모든 억압을 폭로할 것입니다.

진보정치는 노동자 민중의 경제, 정치투쟁을 꾸준히 조직할 것입니다. 아직도 노동자들의 파업에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전경의 군화발이 덮쳐 옵니다. 단사노조의 투쟁에 노동부, 경찰, 노무과, 국정원 등의 공안기관 전체가 달려듭니다. 진보정치는 현장에 조직된 당원들이 중심이 되어 투쟁사업장, 탄압 받는 사업장과의 연대투쟁을 조직해야 하고 이를 연맹과 민주노총 전체의 대응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진보정치 성원으로 조직되는 조합원들은 진보정치의 활동을 통해 단련되면서 열성조합원으로 성장할 것이고 이는 대중조직의 강화, 대중투쟁력의 강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진보정치의 복원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치활동도 전개해야 합니다. 사실 지역 주민의 대다수는 노동자 서민들입니다. 노동자 밀집지역의 경우 조합원들이 아파트자치회를 민주적으로 개선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할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진보정치 복원은 지역 주민들 속에서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알려내고, 노동조합과 친화력을 높여냅니다.

그리고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그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한편 진보정치의 복원은 대중투쟁과 선거, 의회활동을 긴밀히 결합시킵니다.

4) 진보정치의 복원은 노동조합운동과 함께 해야합니다.

진보정치의 복원과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하려는 진보정당과 다르지만 서구에서는 이렇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노동조합이 정당건설의 주요 주체였고 노동조합이 정당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정당이 노동조합운동을 이끌었고 조합원의 다수가 정당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정당건설 초기에 조합원이 의무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정당과 노동조합이 서로 자립적이고 독립적이면서도 긴밀히 결합하고 적극 연대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과 진보정치는 노동운동의 두 축입니다.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대중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고 이를 위해 경제투쟁, 나아가 정치투쟁에 나섭니다. 정치는 스스로의 일상 활동과 투쟁을 통해 노동자 대중을 각성시키며 올바른 방향,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투쟁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권력 장악을 위한 길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강화해 갑니다. 그리고 진보정당은 노동자의 가장 선진적인 사람들의 결사체이므로 노동운동을 실질적으로 지도해나갑니다.

진보정치의 복원은 노동조합의 투쟁을 옹호하고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막아내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투쟁의 전선에서 최선두에서 싸웁니다.

노동조합은 경제투쟁, 진보정당은 정치투쟁이라는 식으로 나뉘어 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조합도 경제투쟁뿐 아니라 정치투쟁을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전체 대중들의 기초적인 이해에 근거해 투쟁한다면, 진보정치는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방향에서 투쟁을 전개합니다.

진보정치 복원은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 사이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아직 전체 1천8백만 노동자중 80여만 명만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보정치 복원은 한국노총 산하 노동자들, 나아가 미조직된 노동자, 실업 노동자의 투쟁과 민주노조 건설을 조직하기 위해 활동해야 합니다. 전체 노동자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그들이 민주노조 건설과 진보정치의 복원에 결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진보정치의 복원은 노동조합의 투쟁에 모든 민중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중연대 투쟁으로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리하여 노동조합이 자본의 하위 파트너로 포섭되는 것을 막아내고 노동자의 궁극적 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5) 진보정치의 복원 그 주인이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진보정치는 보수정당과 같이 보스를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내는 사람들에 의해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진보정치에는 다양한 계급 계층이 참가하므로 다양한 사상과 노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 내부에서도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상과 노선이 있다고 걱정할 것은 못됩니다. 진보정치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통일해나가야 합니다.. 모든 진보정치 복원의 주인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

고 알릴 자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내부적 사상 투쟁은 열린 태도를 가지고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실천함으로써 검증받겠다는 적극적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혹 내부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이나 일삼고 보수 정치권과 다름없이 싸움만을 해서 주저앉을 것을 걱정하는 거라면 이것도 수십만의 정당원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수십만의 대중을 움직이며 정세에 개입하는 당은 통이 커지고 활동가들의 책임감도 무거워 집니다. 그런 당에서는 조잡한 분파주의가 설자리가 없습니다.

다양한 노선은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토론과 경쟁을 통해서 종합적인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모두 함께 집행, 실천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선이 실천적으로 검증되고, 민주적이고 통일된 정치로 발전할 것입니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분당과 진보신당, 통합진보당등으로 이어지는 진보정치 15년 동안 우리는 민주적인 진보정치 구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보정치의 민주집중제 구현은 필연적이고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6. 진보 정치의 복원은 실천 속에서 건설되어야 합니다.

총파업 투쟁의 경험을 통해 진보정당건설의 공감대가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듯이 당면한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대규모 투쟁으로 진보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건설과 동시에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중요한 과제로 했습니다. 그러나 96년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자들에게 진보정당은 당위적인 과제였습니다. 진보정당에 노동자들이 나선다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6, 97 총파업 투쟁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막연한 목표였던 진보정당 건설이 실천적인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지금 진보정치의 복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정당처럼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진보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당면 정세에 부합하는 실천 투쟁을 통해 건설해야 하며, 이래야 제대로 된 진보정치의 복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7. 진보 정치 복원의 뿌리는 현장입니다.

1) 현장에서부터 정치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진보정치 복원의 중심이듯이, 정치활동의 뿌리는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무슨 정치활동? 그러나 현장에서의 정치활동이 없는 진보정당의 정치활동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은 노조운동에 매달리고 정치활동은 현장과 괴리된 채 지역선거구에서만 진행될 것입니다. 이전에 노동자가 중심이 되지 못한 정당활동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아닙니다. 다른 계층과 달리 노동자들이 갖는 장점은 같은 사업장에서 하루의 절반 가까이 함께 지내고 이러한 공통점을 기초로 조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이 있고 같은 사업장 사람들이 모이는 취미동아리도 있습니다. 진보정치 복원의 주인공을 조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정치활동을 기초로 해서 지역 정치활동이 조직되어야 합니다.

진보정치는 현장 정치활동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지역에서의 정치활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현장은 뒷전에 둔 채 지역 활동을 합네 하고 돌아다녀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사이비 정치로 빠집니다. 현장 정치활동을 튼튼히 하지 않는 지역 정치활동은 부실공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합니다. 특히 상처를 안고 있는 진보정치를 복원해 나가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현장 정치활동은 강조되고 또 강조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극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현장 활동이라면 노조 민주화나 노조활동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민주노조 집행부를 건설하고 민주노조를 지키는데 힘을 쏟아왔습니다. 대부분 노조민주화추진위나, 노조민주화실천위 활동 수준이었습니다. 현장조직에서 민주 집행부를 세우고 나면 할 일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수준을 극복해야 합니다. 활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합니다. 현장 대중들 속에서 경제선동과 정치선동을 수행하고 일상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민주노조 강화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정치의식을 드높이기 위한 활동을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한 활동은 현장을 민주노조운동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장악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사회전반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고 우리사회의 근본변화를 이룰 진지를 구축해 갈 수 있습니다.

2) 현장 정치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① 정치신문의 배포와 활용

정치활동의 출발은 폭로하고 선동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투쟁할 때를 기억해봅시다. 노동자들이 당하는 부당한 현실을 폭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작업장의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 관리자의 비인간적인 행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도 보장되지 않는 저임금 같은 불만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자고, 노동조합을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그것이 투쟁을 촉발시켰고, 그 힘으로 민주노조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그리고 사회·정치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통, 자본과 정권의 반노동자적인 작태를 폭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폭로하고 선동하는 것, 이것이 현장 정치활동의 출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사상정치활동이 중요해 지는 시기에 정치신문은 그런 활동의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정치신문과 현장신문들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치조직들의 기관지에서 현장조직 신문, 지역 정치신문이 있습니다. 또 이런 신문들은 계속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더욱 중요한 것은 진보정당이 발행하는 전국적 정치신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역량을 모은다면 어렵지 않게 전국적 정치신문을 발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보정치 복원을 위한 신문은 현장에 기초해 현장대중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발간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간신문으로 출발하겠지만 일간지까지 발전될 것입니다. 이런 신문의 발간은 발간사업 그 자체에 수많은 활동가와 조합원을 끌어들이어 훈련의 장으로 자리잡을 것이고 고정 독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당의 대중적 기초가 탄탄해 질 것입니다.

② 현장 토론회 개최

우리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현장 토론, 분임토의 등의 경험이 있습니다. 조별, 혹은 소위원회나 사업장별로 조합원을 묶어 현장문제와 노조활동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방안을 내왔습니다. 노동조합이 활기를 띠 때는 이런 현장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정치신문이나 현장정치신문은 그냥 배포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보는 것만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갖고 대중들, 선진 조합원들 사이에서 토론을 벌여야 합니다. 그 토론 과정 속에서 대중들의 정치의식이 각성되고 정치운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다양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현장조직도 있고 부서별 모임도 있고 술먹는 모임도 있고 동아리도 있습니다. 이들 조직 속에서 정치신문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불만이 터져 나오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위의 동료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실천입니다.

③ 정치교육

그 동안 지역이나 단체, 단위사업장에서 노동교실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 교육으로 많은 간부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운동의 정당성과 노동운동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노동조합운동 활동가들이 양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운동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진보정치 복원을 위한 정치학교 등 정치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이 사회를 어떻게 개조할 것인지, 노동운동의 궁극적 목표와 당면한 실천에 대해서는 터놓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노동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지난 진보정치의 실패를 거울 삼기 위해 충분한 평가와 토론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진보정치복원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초빙하여 함께 토론하고 노동자의 포부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④ 대중 투쟁의 조직

정부, 자본과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곳이 바로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경제 투쟁을 조직하는 곳도 현장입니다. 정치운동은 현장 투쟁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정치활동을 하는 노동자는 현장투쟁도 가장 열심히 하고 현장에서 신망 받는 노동자여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작업속도를 증가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컨베이어를 멈춘 투쟁,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 작업환경을 개선하려는 투쟁이 현장단위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투쟁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투쟁하고 노동조합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전투력으로 현장의 진보정치 주인공들이 앞장서는 것은 물론 노동조합의 단결을 강화하는 허리의 역할을 그 주인공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현장의 대중들과 진보정치 복원의 주인공이 접촉하는 당사자는 바로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현장대중의 가장 가까이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대중의 지지와 참여는 높아질 것입니다.

⑤ 현장 분회 활동

현장 분회는 진보정치를 복원하는 주인공들의 현장조직입니다. 진보정치 복원의 세포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정치활동은 현장 분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진보정치를 복원하고자 하는 주인공들은 현장에서 분회를 조직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 진보정당을 했던 사람들도 현장 분회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과의 결합력이 취약했기 때문에 거의 성과가 없었습니다. 사업장에서 한두 명 정도 참여하는 분회로는 조직으로 활동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수의 선진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진보정치 복원을 위한 분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현장 정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현장 분회는 정치신문을 제작·배포하고, 토론과 실천을 조직하고, 투쟁을 전개하는 등 사업장에서의 정치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⑥ 진보정치 복원을 위한 지역사업에 참여

현장에서의 정치활동을 기초로 지역활동에 참가합니다. 지역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이나 선거에서 현장의 노동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선거뿐만 아니라 대중투쟁에서도 지역조직들은 시위, 집회를 책임지고 조직, 지도하고 지역, 광역단위의 연대 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8. 노동자의 희망, 진보정치 복원에 모두가 나섭시다.



지금 노동자들은 함께 하는 노동운동, 함께 하는 진보정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의 편가르기로 인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를 불신의 눈초리로 보게 했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대기업 노동자를,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를 희망, 청년노동자는 장년 및 노인 노동자들을,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노동자들을 희망이 아니라 불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자본은 노동조합 무력화와 일반해고, 임금피크제실시, 취업규칙 변경등을 법제화 하겠다고 합니다. 법과 원칙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들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평등권과 노동 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밥쌀용 쌀까지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방방곡곡에서 분노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100만이 된다는 청년실업 문제는 이미 청년 스스로를 미래의 주인공이 아니라 4포니 5포니 하면서 미래 포기 세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민주화는 타임머신을 타고 거꾸로 가고 있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넓어진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은 뒷걸음질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누가 옳니 그러니’하면서 진보정치의 복원은 아직도 걸음마에 가까운 정도입니다.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은 국민절망시대에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누가 1% 정부와 자본의 핍박아래서 99% 5천만 동포를 구원할 것인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조물주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자비로만 살 수 있게 하는 신이 있다면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를 두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자, 바로 노동자 바로 당신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길, 노동자, 민중의 지지를 받고 다시 태어날 “진보정치 복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냉냉합니다.

아직도 중북 세력이라는 낙인으로 선불리 진보정치의 복원을 위해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의 시계는 성큼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에 맞춰 부실정당, 허약한 정당, 노동자, 민중의 지지를 못받는 일시적인 진보정치를 복

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정부의 탄압에 쓰러지지 않는 노동자, 민중이 함께 손잡고 가는 진보정치 복원!

밥그릇 하나 놓고 서로 먹으려는, 금뺏지를 두고 이진투구하지 않는 진보정치 복원!

노동자들이 힘있게 나서 그야말로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치 복원!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소수가 아닌 절대 다수 민중을 위한 진보정치 복원!

우리가 해내야 하고, 해낼 수 있습니다.